

##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sup>†</sup>

김 교 현<sup>‡</sup>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질투의 성차에 관한 특정 모듈 이론가들은 남성은 짝의 성적인 부정에 대해 더욱 큰 혼란을 겪는 반면, 여성은 짝의 정서적 부정에 대해 더 당혹스러워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남녀가 진화적 적응환경에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핵심과제가 달랐기 때문인데, 남성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잘못알고 키우는 경우가 진화적 적응의 핵심문제인데 반해 여성에게는 짝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기간 동안에 자신과 자식에게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정서적 배신을 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Buss 등(1992)의 질투의 성차에 관한 특정 모듈 가설을 반복 검증해 보고, DeSteno와 Salovey(1996)의 이중사실 가설과 Harris(2003b)의 사회-인지 가설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 했다. 300명의 한국인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상적 상황에서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 중 어느 것이 더 괴로운가를 묻는 강제선택방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연구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인이나 배우자의 성적 부정에 대해 더 혼란을 겪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부정에 대해 더 큰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모듈 가설이 반복 검증되었다. 아울러, 이중사실 가설이나 사회-인지 가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지지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연구의 결과는 특정 모듈 가설과 사회-인지 가설과 관련해서 논의되었으며, 질투에 관한 대안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주요어: 질투, 성차, 성적 부정, 정서적 부정

<sup>†</sup> 이 논문은 2003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교현,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kyoheonk@cnu.ac.kr

질투는 개인의 정서 생활과 건강 및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조직 및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대중가요의 가사나 영화 제목 혹은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세상을 크게 바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질투는 그 모습을 달리하며 반복 출현하고 있다. 질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동양 혹은 서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질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질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질투를 사랑의 그림자로 조망하는 Pines(1992)는 질투를 “가치 있는 관계나 관계의 질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간명하게 정의한다(p. 3). 즉, 질투는 관계의 산물이자 관계나 관계의 질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의 산물이다. 질투(jalousy)는 흔히 시기(envy)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기가 “가지지 못한 데”에 대한 반응이라면, 질투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데”에 대한 반응이다.

시기는 내가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시기는 나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부족감이나 실패감에서 기인한다. 흔히 시기 반응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이 부럽다는 선망과 나는 상대적으로 실패한 열등한 존재라는 좌절감과 그리고 상대방의 성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분노가 혼합되어 있다. 시기의 이면에는 나를 좌절시킨 상대에 대한 은밀한 분노가 숨어 있다. 그러나 상대로부터의 적극적인 공격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드러난 공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므로 은밀한 형태로 분노가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시기에 비교해서 질투는 이미 확립된 관계나 관계의 질을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현재의 관계나 관계의 질을 손상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서 오는 불안과 이런 위협을 유발시킨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이 질투 반응의 핵심을 이룬다. 질투는 소중한 관계를 점점하고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건강과 관계를 해칠 위험성 또한 함께 높다. 질투는 인간 역사를 통해 고통과 비극을 만들어 왔다. 질투는 살인, 공격, 증오, 자존감 상실, 우울, 자살, 가정 폭력, 가족 불화 및 이혼 등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받는다(Adams, 1990; Everton & Tates, 1990; Mathes, Adams, & Davis, 1985; Stewart & Beatty, 1985; Pines, 1992에서 재인용). 질투 반응은 많은 사회에서 금기시되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질투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고 파괴적이 될 가능성이 또한 높다.

질투는 단순히 감정 반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질투는 소중한 관계의 위협에 대한 감정과 사고와 생리 등의 내적 반응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반응까지를 포함한다. 공포(혹은 불안), 분노, 시기, 슬픔, 굴욕감 등이 흔히 질투 감정의 주요 성분을 이루거나 그와 함께 동반된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와 같은 분개,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어리석었더니? 믿었더니?” 등과 같은 자기비난적 생각 및 “나는 상대만큼 매력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성공적이지 못해”와 같은 라이벌과의 비교가 질투 상황에서 일어나는 흔한 생각의 내용이다. 뇌 속으로의 혈류의 유입,

손의 떨림, 과잉호흡, 현기증, 심박 증가, 수면 곤란 등은 질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생리적 반응이다. 아울러 문제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하기, 울음, 보복, 폭력 등은 질투와 관련되는 흔한 행동 반응이다. 불안과 분노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 반응이 질투의 핵심을 이루겠지만 질투의 개념을 사고, 감정, 생리 및 행동 반응까지 확장하는 것이 질투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 더 유용해 보인다.

질투는 흔히 많은 활동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흔하다. 부모와의 관계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질투나 교사의 애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아동들 사이의 질투 혹은 친구들 사이의 질투 등이 아동기 질투의 전형이라면, 연인과 자신 및 다른 제삼의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질투는 청년기 이후 질투의 전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 사이의 질투에 초점을 맞춘다.

일부 진화심리학자들(Buss, 1995, 2000; Daly, Wilson, & Weghorst, 1982; Pinker, 1997; Symons, 1979)은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에는 뚜렷한 성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남성들이 연인에 대해 갖는 질투가 일차적으로 성적(sexual)인 성질을 띠는 데 반해 여성들이 연인에 대해 갖는 질투는 일차적으로 정서적인(emotional) 성질을 띠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성차의 이유를 남녀 사이의 진화적 적합성(fitness)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현생 인류 진화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초원의 수렵채집 시기(진화적 적응환경: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EEA)에 남성들은 아이가 자신의 진

짜 자식인지(부성: paternity)를 확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여성의 성적 부정은 남성의 자손번식에 결정적인 위협요소가 되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남성에게는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양 잘못 부양하는 데서 오는 진화적 손실이 매우 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응기제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진화적 적합성을 갖춘 남성들은 짝의 성적 부정을 암시하는 신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했다.

여성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여성은 자신의 자궁으로부터 출산하기 때문에 모성(maternity)에 대한 의심이 없다. 대신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기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자식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짝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장기적 관계의 짝을 찾을 때 상대가 자신과 자식을 돌볼 물질적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할 능력과 충성심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짝이 맺어진 후에도 자신과 자식에게 제공하는 자원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여성과의 정서적 애정 관계 발달을 경계하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남성들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킨 여성 짝에게 자신의 물질적 자원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uss(1995, 2000)를 필두로 한 일군의 진화심리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종류의 진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질투의 특정한 선천적 모듈(jealousy as specific innate module: JSIM)'을 발달시켰다고 제안했다. JSIM에서는 남성들에게는 짝의 성적인 부정과 관련된 단서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천적이고 특정한 모듈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여성들에게는 짝의 정서적인 부정과 관련된 단서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천적이고 특정한 모듈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는 질투와 관련된 남녀의 이런 모듈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나 연령, 학력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진영의 연구자들은 전형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적으로 만든 성적인 부정 상황과 정서적인 부정 상황을 동시에 제공하고, 어느 상황이 자신에게 더 괴로운가를 택하도록 하는 강제선택방식을 사용해서 자료를 얻었다.

Buss, Larsen, Westen, 및 Semmerlroth(1992)와 Buunk, Angleitner, Oubaid 및 Buss(1996), Buss, Larsen 및 Westen(1996) 그리고 Buss, Shackelford, Kirkpatrick, Choe, Hasegawa, Hasegawa 및 Bennett(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자기 짝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더 많은 괴로움을 나타냈으며, 여성들은 자기 짝이 다른 여성과 정서적 애착관계를 발달시키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괴로움을 나타냈다. 이런 차이는 자기보고식 검사뿐만 아니라 피부전기활동(EDA)이나 맥박 및 근전도활동(EMA) 등과 같은 생리적인 각성 측정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질투에서의 성차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일본 및 한국에서도 일관되게 반복되었다. Buunk 등(1996)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JSIM 모형이 과학의 모든 기준— 응집성(coherence), 절약성(parsimony), 예측력(predictive power) 및 반증 시도(attempts to falsification) — 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p. 375)”는 과감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JSIM의 입장에 대한 반론이 최근 시작되었다.

DeSteno, Bartlett, Barverman 및 Salovey(2002)와 Harris(2002, 2003a, 2003b, 2004)가 반대 진영의 대표 연구자들이다. DeSteno 등(2002)은 Buss 진영에서 발견한 일관된 성차는 강제선택 방식이라는 응답방법의 측정오차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성적인 부정(infidelity) 상황과 정서적인 부정 상황,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괴로움을 주느냐?”고 물어보는 강제선택 방식에서는 두 상황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이고도 신중한 응답을 하게 되고 인상관리 전략이 많이 작용하며, 따라서 진화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동적인 질투 반응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본다. DeSteno 등(2002)은 강제선택방식에 대한 응답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향의 성차가 반복검증되었지만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의 개별 상황에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정하는 리커트식 응답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또한 추가적 기억과제를 부가해서 인지적으로 부하된(cognitively loaded) 조건을 만들어, 의식적인 인상관리 전략이 작용하지 못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질투 반응을 측정하려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인지적 과부하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인 부정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질투를 보고하였으나, 여성은 인지적 과부하 과제가 있는 조건에서 성적인 부정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질투를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질투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견해에 대한 증거가 진화에 의해 조형된 자동적이고 성-특정적인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론의 인공물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선택 응답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은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기도 했다(DeSteno &

Salovey, 1996; Harris & Christenfeld, 1996). '이 중사살 혹은 일석이조(double-shot or two for one) 가설'로 알려진 설명에서는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은 흔히 서로 상관되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남성은, 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그녀는 이미 그 남성에 대해 정서적인 애착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상대의 성적인 부정이 더 심각한 사태가 된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이 정서적 애착 없이도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이 여성에게 정서적 애착을 발달시키면 성적인 관계도 맺게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남성의 정서적인 부정이 더 심각하다. 즉, 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정서적인 부정을 통해, 그 하나로 나머지 다른 하나의 부정을 이중으로 확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질투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견해를 보다 본격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은 최근 Harris(2002, 2003a, 2003b, 2004)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녀는 진화심리학 진영에서 주장하는 질투의 성차에 관한 증거들이 주로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강제선택하게 했던 자료들에만 제한된다고 지적한다(Harris, 2003a, p. 320). 가상적 상황에 대한 강제선택 방식은 유의한 성차를 나타냈던 18개의 연구 모두에서 사용되었다. 미국 대학생 표본에서 여성들의 83% 정도가 정서적인 부정 상황을 더 괴롭다고 답하는 데 반해 남성들은 40% 정도가 그렇게 응답했다. 이에 반해 남성의 60% 정도가 성적 부정 상황을 더 괴롭다고 평가했으며 여성들은 17% 정도가 그렇게 응답했다. 질투에서 성차는 40% 이상으로 컸다(예,

Buss et al., 1992). 동일한 방향의 성차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중국이나 독일 혹은 폴란드에서는 성적 부정이 더 괴롭다고 응답하는 남성의 백분율이 25-30% 정도로 낮았으며 성차의 크기도 미국 표본에 비해 작았다(예, Buunk et al., 1996; Geary, Rumsey, Bow-Thomas, Hoard, 1995).

Harris(2003b)는 진화심리학 진영에서 제안하고 있는 질투의 JSIM 가설의 5가지 지지 증거--자기보고식 자료, 생리적 반응, 대인간 폭력(배우자 폭력이나 살인) 및 병적 질투--에 대해 반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투에 대한 사회-인지적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녀는 가상적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 자료에서 JSIM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실제 부정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 자료와는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남성이 나타내는 성적 부정 상황의 상상에 대한 더 높은 생리적 각성 반응은 일반적인 성 반응의 성차와 다르지 않으며, 성적 부정으로 인한 배우자 살해 비율도 살인의 기저율(base rates)을 감안하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의미 있게 높지 않았다. Harris(2003b)는 JSIM보다는 사회-인지적 관점이 질투와 관련된 종전의 성차 연구 결과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질투에 대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가, 남녀 사이에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정한 모듈에 따라 질적으로 다르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인지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적 모듈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질투의 유발에서 인지적 평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성적이거나 정서적인 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특정한 정서나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예, Harris, 2003b; Hupka & Ryan, 1990; Salovey & Rothman, 1991).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질투 반응을 유발하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 기존 관계에서 얻던 보상이 위협을 받는 것과 (2) 자기-개념이나 자존감의 어떤 측면이 라이벌에 의해 도전을 받는 것. Salovey와 동료들(Salovey & Rodin, 1984; Salovey & Rothman, 1991)은 라이벌이 자신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 자신을 능가했을 때 질투심을 가장 크게 느낄 것이라고 예언하는 ‘영역 관련 가설(domain relevance hypothesis)’을 제안했다. 인간에게는 흔히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보상의 원천이고 자기 평가나 자기개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의 위협이 성인 질투의 일차적 근원이 될 것이다. 질투에 관한 사회-인지적 관점을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Lazarus(1991, 1999)의 정서이론의 틀 속에서 조망할 수 있다. Lazarus에 따르면, 질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정서는 일차 및 이차 평가의 산물이다.

일차평가는 어떤 사건이 자신의 목표와 관련해서 무관하거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가에 대한 의미 평가로 보다 선천적이고 자동적이며, 의식적인 인지과정이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다(예를 들어, 8개월 정도 된 유아가 자신의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질투의 표시를 보이며 강아지도 어려서부터 질투 행동을 드러낸다). 질투의 경우, 연인과 라이벌 사이의 긍정적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위협 평가가 직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비록 의식적인 이유를 댈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일차평가로 그치지 않고, 위협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내가 그 위협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효과는 어떠할까?에 대한 의식적 평가과정인 이차평가가 일어나며 이 과정이 후속 감정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인과 라이벌 사이의 상호작용이 자신들의 기존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특정한 평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평가가 연인이나 배우자의 상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슬픔이나 공포가 질투 감정과 동반되거나 섞이겠지만, 라이벌의 부당한 자기영역 침범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분노 감정이 동반되거나 혼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인 사이의 질투 연구와 관련해서,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투의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답을 얻으려 했다. 먼저, 가상적 시나리오를 사용한 강제선택 응답 방식에서 나타나는 질투의 성차가 한국에서도 확인 되는가?를 알아보려 하였다. Buss 등(1999)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인 표본을 포함시켰고, 황재원, 허태균 및 한성열(2004)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자료가 얻어졌지만, 이런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생 집단만을 연구대상에 참여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뿐만 아니라 주부와 교사 및 회사원 등의 일반 성인 집단을 연구에 참여시켜 JSIM 가설에서 주장하는 성차를 확인해 보려 했다. 일반 성인 집단에 대한 자료의 부족은 선행 연구들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Harris, 2003a, 2003b).

두 번째로, DeSteno와 Salovey(1996) 그리고 Harris와 Christenfeld(1996)가 제기하는 이중사실

혹은 일석이조 가설의 문제를 제거하고도 질투의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이를 위해서 Buss 등(1992)이 사용한 원 문항을 변경시킨 추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변경된 문항들에서는 부정 시나리오가 성적 부정이나 정서적 부정 중 어느 하나로만 국한되거나 두 가지 부정을 모두 발달시켰을 때, 어느 상황이 더 괴롭고 당혹스러운가를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응답도 Buss 등(1999)의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역시 대학생 집단에 한정된 것이었다.

세 번째로, 질투에 대한 사회-인지 가설의 주장과 JSIM 가설의 주장의 타당성을 비교해보려 하였다. JSIM 가설에서는 질투의 성차가 문화나 연령, 관계 지속 기간, 교육 수준, 성격형 유무, 성적 정체성, 자녀 유무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출현하리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사회-인지 가설에서는 관계 위협의 의미를 다르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따라 질투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sex)도 이런 차이를 만드는 변수들 중 하나라고 본다. Sagarin, Becker, Guadagno, Nicastle 및 Millevoi(2002)는 배우자의 부정 경험과 성적 정체성이 질투에서의 성차를 조절하는(moderate)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황재원 등(2004)도 한국 여대생들의 경우, 성 경험 유무가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Harris(2003a, 2003b, 2004)는 질투 연구에서 문화별로 달라지는 성차 양상이 문화가 관계 위협에 각기 다른 평가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 관계의 위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했다. 만약, 연인이나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관계 위협에서 나타나는 질투의 성차가, 위협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모듈 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JSIM 가설이 힘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조절변수들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관계의 지속기간, 연령 차이, 자녀 유무, 출생 순위, 결혼 상태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과 자괴감과 애착 유형 등의 심리적 변수들이었다.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의 대학생과 주부, 교사 및 회사원 등이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 '성과 친밀한 관계 및 질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시문을 통해 사적 비밀의 보장에 대한 철저한 보장과 솔직한 응답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 135명(45%), 여성 165명(65%)으로 전체 300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0대 24명(8%), 20대 159명(53%), 30대 69명(23%) 및 40대 이상 48명(16%)이었다. 참여자들의 학력 수준은 대학 재학생이 139명(46%), 고졸/전문대졸이 40명(13%) 및 대졸 이상이 121명(40%)이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106명(35%), 천주교 39명(13%), 불교 38명(13%), 무교 110명(37%) 및 기타 7명(2%)이었다. 이들의 직업 분포는 대학생 139명(46%), 회사원 63명(21%), 교원 50명(17%), 주부 33명(11%), 기타 15명(5%)이었다. 이들의 결혼 상태는 미혼 156명(52%), 기혼 131명(44%) 및 이혼 사별 동거 등

의 기타가 13명(4%)이었다. 이들의 현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기간은 3년 이상이 114명(38%), 1년에서 3년 사이가 46명(15%), 1년 미만 이 54명(18%) 그리고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86명(29%)이었다.

### 측정 도구

#### 질투 질문지

Buss 등(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2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Buss 등(1999)이 이중사살 가설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정 질문 4문항도 함께 사용하였다. Buss 등(1992)의 2문항에 대한 지시문과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과거에 맺었던 깊이 개입된 애정적 관계나 현재 맺고 있는 깊이 개입된 애정적 관계, 혹은 앞으로 당신이 맺고 싶은 깊이 개입된 애정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상황이 더 당혹스럽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둘 중에서 더 괴로운 상황에 표시해 주십시오.”

#### 질문 1.

A. 파트너가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애정을 보인다고 상상할 때\_\_\_\_\_

B. 파트너가 그 사람과 격정적인 성행위를 즐기고 있다고 상상할 때\_\_\_\_\_

#### 질문 2.

A. 파트너가 그 사람과 성행위의 체위를 바꾸려 한다고 상상할 때\_\_\_\_\_

B. 파트너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할 때\_\_\_\_\_

한편, 이중사살 가설을 배제하기 위해 Buss 등(1999)이 사용했던 4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애정 관계도 발달시키고 성적 관계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트너의 어떤 관계가 당신을 더 괴롭고 당혹스럽게 할 것 같습니까?

A. 그 사람과의 성적 관계\_\_\_\_\_

B. 그 사람과의 정서적인 애정관계\_\_\_\_\_

2. 아래의 두 경우 중, 당신은 어느 경우가 더 괴롭고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당신의 파트너가 상대와 성적 관계는 맺었지만 깊은 애정은 발달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_\_\_\_\_

B. 당신의 파트너가 상대와 깊은 애정은 발달시켰지만 성적 관계는 맺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_\_\_\_\_

3. 당신은 어느 경우가 더 괴롭고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당신의 파트너가 과거 연인에 대해 성적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을 경우\_\_\_\_\_

B. 당신의 파트너가 과거 연인에 대해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성적 관심은 없는 경우\_\_\_\_\_

4. 당신은 어느 경우가 더 괴롭고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단 하루밤의 성적 관계는 갖지만 다음에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_\_\_\_\_

B.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애정은 발달시키고 있지만 성적 관계를 가질 기회는 없는 경우\_\_\_\_\_

각 응답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는 외에도, 성적 부정에 관한 응답을 1점, 정서적 부정에 대한 응답을 0점으로 채점해서 ‘성적 부정에 대한 반응성’ 점수를 구성했다. 이 경우, Buss 등(1992)의 원 2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65였으며 Buss 등(1999)이 이중사살 가설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한 4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8이었다.

이 밖에도 이중사살 가설의 주장을 직접 검증해 보기 위해, 남성이나 여성이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발달시켰다면 그와 함께 성적이거나 애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킬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는 4개의 문항을 사용했다. 지시문과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질문은 전형적인 남성이나 여성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만약 남자가 어떤 여자와 깊은 애정을 발달시켰다면, 그 남자와 여자는 지금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2. 만약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남자와 그 여자는 지금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애정을 발달시킬 것이다.

3. 만약 여자가 어떤 남자와 깊은 애정을 발달시켰다면, 그 여자와 남자는 지금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4. 만약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여자와 그 남자는 지금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애정을 발달시킬 것이다.

위의 4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 사이의 10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4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6이었다.

### 애착 유형 질문지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 애착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애착 유형은 안심과 회피 및 불안(양면감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진술문들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지를 물었다.

#### A. 안심

“나는 남들과 쉽게 가까워지고 내가 남들에게 의존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의존해도 불편하지 않다. 버림받을까 봐 또는 남이 너무 가까이 올까 봐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 B. 회피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다. 남들을 완전히 믿기가 힘들고 남에게 의존하도록 나 자신을 허용하는 게 힘들다. 누구든 너무 가까워지면 신경이 쓰이고, 내가 느끼는 친밀 정도보다 사랑하는 상대가 바라는 친밀 정도가 흔히 더 크다.”

#### C. 불안(양면감정)

“나는 남들이 내가 바라는 만큼 가까워지기를 꺼린다고 느낀다. 나는 나의 파트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까 봐 또는 나를 떠날까 봐 걱정하는 일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

고, 이 욕망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버린다.

**자존감 질문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 사이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0이었다.

**인구학적 변수**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관계의 지속기간, 연령 차이, 자녀 유무, 자신의 출생순위, 결혼 상태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에 대해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결 과**

**가상적 부정 상황에 대한 질투 반응의 성차**

성적 부정과 정서(애정)적 부정 상황 중 어느 것이 더 당혹스럽고 괴로운가에 대한 남녀별 응답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 표 1이고, 이를 그림으

표 1. 가상적 부정 상황에 대한 질투의 성차

	남성	여성	전체
질문 1. 연인이 어느 상황일 때 더 괴로운가?	n = 132	n = 164	n = 296
다른 사람과 격정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상황	52.3%	19.5%	34.1%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애정을 보이는 상황	47.7%	80.5%	65.9%
질문 2. 연인이 어느 상황일 때 더 괴로운가?	n = 132	n = 164	n = 296
다른 사람과 성행위의 체위를 바꾸려는 상황	28.8%	11.6%	19.3%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상황	71.2%	88.4%	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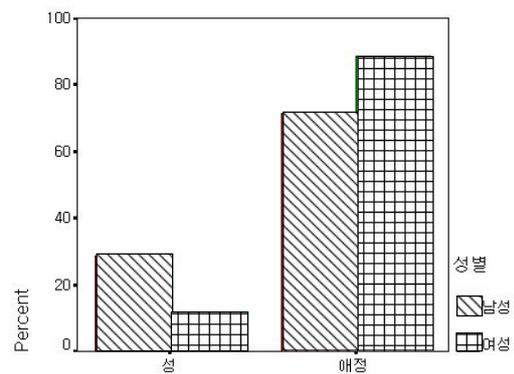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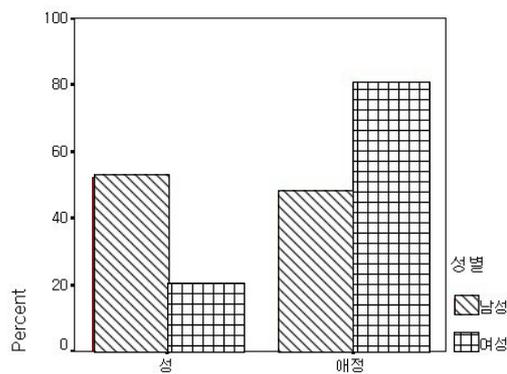


그림 1~그림 2. 어느 상황이 더 괴로운가? 에 대한 남녀 응답률의 차이

로 나타낸 것이 그림 1과 그림 2다.

질문 1( $\chi^2(1) = 34.9, p < .001$ )과 질문 2( $\chi^2(1) = 13.9, p < .001$ )의 응답에서 모두 남녀 간의 성차가 유의했다. 그림 1과 2에서 보듯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인의 성적인 부정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인의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해 더 당혹스럽고 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가지 상황을 합한 종합적인 답을 얻기 위하여, 위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해서 전체 점수를 얻었다. 즉, 두 문항에서 성적인 관계에 대해 더 괴롭다는 반응을 1점을 주는 방식으로 두 문항의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성적 부정에 대한 반응성' 정도로 보았다. 이렇게 하여 얻은 점수의 남녀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남성( $M = .81$ )이 여성( $M = .31$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F(1, 294) = 36.41, p < .001$ ). 이런 결과는 JSIM 가설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 이중사살 가설의 검증 결과

이중사살 가설은 남성은 여성의 성적 부정이 정서적 부정을 동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여성은 남성의 정서적 부정이 성적 부정을 동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강제선택 방식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질투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예측한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인이 두 가지의 부정 모두에 관여된 상황과 정서적 부정이나 성적 부정 중 어느 하나에만 관여된 상황 및 과거 연인과의 관계나 하룻밤 관계의 상황 등, 4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다.

4가지 상황에서 성적 부정과 정서(애정)적 부정 중 어느 것이 더 당혹스럽고 괴로운가에 대한 남녀별 응답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 표 2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 4, 5 및 그림 6이다.

모든 질문에서 남녀 사이의 성차가 유의했다(질문 1( $\chi^2(1) = 21.1, p < .001$ ); 질문 2( $\chi^2(1) = 14.6,$

표 2. 이중사살 가설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상적 부정 상황에서의 질투의 성차

	남성	여성	전체
질문 1. 정서적 애정관계와 성적 관계 모두	n = 131	n = 164	n = 295
성적인 관계	45.8%	20.7%	31.9%
애정적 관계	54.2%	79.3%	68.1%
질문 2. 두 가지 부정 중 어느 하나만	n = 133	n = 164	n = 297
성적인 관계	50.4%	28.7%	38.4%
애정적 관계	49.6%	71.3%	61.6%
질문 3. 파트너가 과거 연인에 대해	n = 132	n = 163	n = 295
성적인 관심만 남아 있을 때	50.0%	25.8%	36.6%
애정만 남아 있을 때	50.0%	74.2%	63.4%
질문 4. 하룻밤의 관계	n = 131	n = 160	n = 291
성적인 관계	31.3%	12.5%	21.0%
애정만 발달	68.7%	87.5%	79.0%

$p < .001$ ; 질문 3( $\chi^2(1) = 18.5, p < .001$ ); 질문 4( $\chi^2(1) = 15.4, p < .001$ ). 그림 3에서 그림 6에서 보듯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인의 성적인 부정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인의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해 더 당혹스럽고 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는 JSIM 가설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중사살 가설의 예측에 대한 반대 증거다.

남성과 여성이 남녀의 성 관계와 정서적 애정 관계의 상관 양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며

그 차이의 방향이 이중사살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는가를 직접 검증해 보기 위해 연속 척도에 대한 반응 값들의 성차를 검증하였다. 아래의 표 3은 남녀별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응답 자료에서는,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애정을 발달시키면 성적인 관계도 함께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 $M = 5.78$ )가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애정을 발달시키면 성적인 관계도 함께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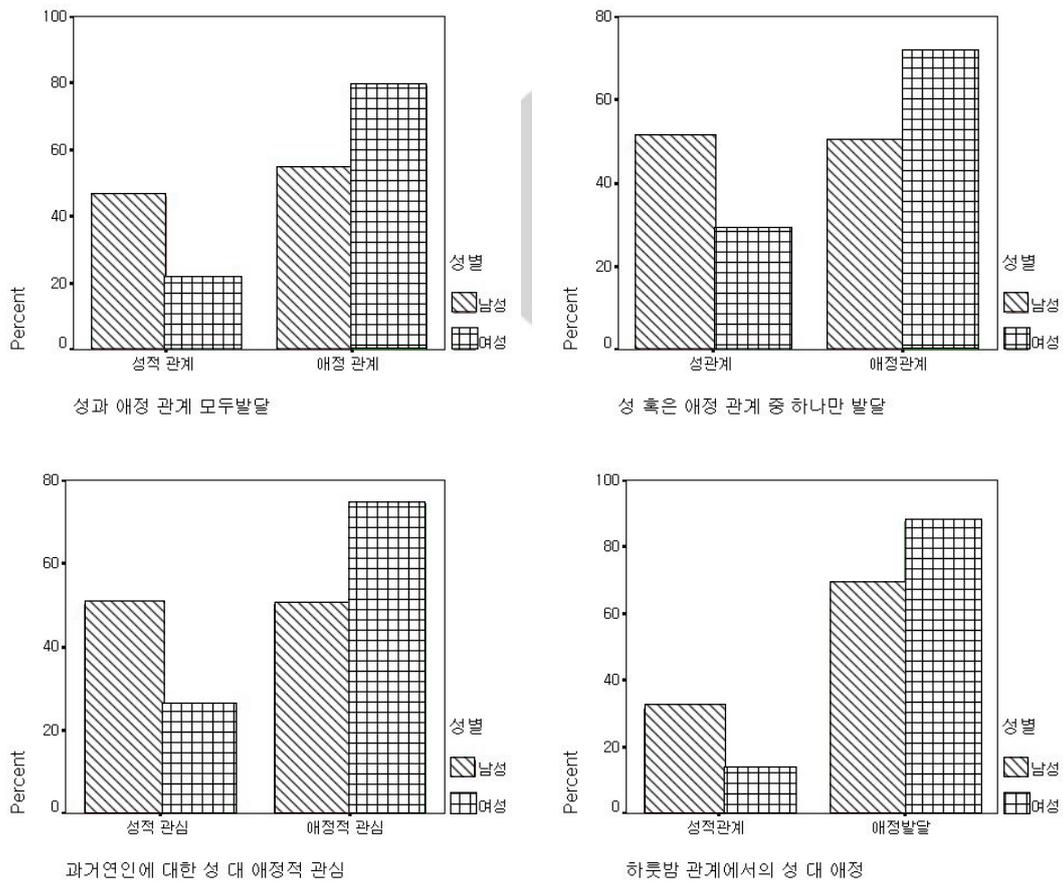


그림 3~그림 6. 어느 상황이 더 괴로운가? 에 대한 남녀 응답률의 차이

( $M = 5.18$ )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여성이 어떤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정서적인 애정 관계를 함께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 $M = 5.51$ )가 남성이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정서적인 애정 관계를 함께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 $M = 4.69$ )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이중사설 가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성이 성적 관계를 발달시키면 애정 관계도 함께 발달시킬 것이라고 믿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성이 애정 관계를 발달시키면 성적 관계도 함께 발달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높아야 한다. 이 방향의 차이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all  $ps > .05$ ). 오히려 남성들은 여성이 애정 관계를 발달시키면 성적 관계도 함

께 갖게 될 가능성을 여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남성  $M = 5.92$ ; 여성  $M = 4.58$ ,  $F(1, 298) = 26.46$ ,  $p < .001$ ). 아울러 남성들은 남성이 성적 관계를 발달시키면 애정 관계도 함께 갖게 될 가능성을 여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남성  $M = 5.01$ ; 여성  $M = 4.43$ ,  $F(1, 298) = 4.95$ ,  $p < .05$ ). 이런 결과는 이중사설 가설의 예측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위 4문항의 응답에서 성적 부정을 더 괴롭다고 응답한 문항 수를 더해서 구한 '성적 부정에 대한 반응성' 점수의 성차를 검증해 본 결과, 남성( $M = 1.74$ )이 여성( $M = .89$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F(1, 285) = 33.38$ ,  $p < .001$ ). 이런 결과는 JSIM 가설의 예측을 지지

표 3. 남성과 여성의 이중 관계 발달에 대한 지각의 차이 및 차이검증 결과

문항 내용	성	N	Mean	Std. Deviation	F
남성-애정-성	남성	135	5.91	2.436	0.725
	여성	165	5.68	2.279	
	Total	300	5.78	2.350	
남성-성-애정	남성	135	5.01	2.364	4.948*
	여성	165	4.43	2.125	
	Total	300	4.69	2.250	
여성-애정-성	남성	135	5.91	2.251	26.458***
	여성	165	4.58	2.226	
	Total	300	5.18	2.330	
여성-성-애정	남성	135	5.49	2.269	0.022
	여성	165	5.53	2.216	
	Total	300	5.51	2.236	

\*  $p < .05$       \*\*\*  $p < .001$

하는 것이다.

## 논의

###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수들의 역할

가치 있는 관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조절효과가 크다면, JSIM 가설보다는 사회-인지적 가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인/배우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이때 사용된 조절변수들로는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관계의 지속기간, 연령 차이, 자녀 유무, 출생순위, 결혼 상태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과 자긍심과 애착 유형 등의 심리적 변수들이 있었다.

조절효과는 '성적 부정에 대한 반응성' 점수에 대해서 해당 조절변수와 성 변수의 이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성과 조절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Buss 등(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2가지 상황과 Buss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 상황에서 측정된 성적 부정에 대한 반응성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2가지 방식으로 측정된 성적 부정에 대한 반응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과 조절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이원변량분석에서 성의 주효과만이 유의했고 조절변수들의 주효과나 성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JSIM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까지 확장한 표본을 대상으로 가상적 시나리오 상황을 사용한 강제선택 응답 방식에서 나타나는 질투의 성차가 한국 성인들 표본에서도 확인 되는가?를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 결과, JSIM 가설대로 두 가지 가상적 상황 모두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파트너의 정서적 부정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DeSteno와 Salovey(1996) 그리고 Harris와 Christenfeld(1996)의 이중사실 혹은 일석이조 가설에서 주장하는, 성과 애정 관계 사이의 상관에 대한 믿음의 남녀 차이를 제거하면 JSIM 진영에서 주장하는 성차 효과가 없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질투의 성차는 모든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중사실 가설보다는 JSIM의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이 모두 관여되는 상황이나 둘 중 어느 하나만 배타적으로 관여되는 상황들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 부정에 더 민감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정서적 부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차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아울러 남녀별로 성과 애정적 관계의 공존이나 발달 관계에 대한 믿음을 검증해 본 결과, 이중사실 가설에서 예측하는 방향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Weideman과 Kendall(1999)도 스웨덴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중사실 가설이 지지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연령이나 학력, 직업, 종교, 관계의 지속기간, 연령 차이, 자녀

유무, 출생순위, 결혼 상태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과 자긍심과 애착 유형 등의 심리적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에서도 인지-사회적 관점의 예측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물론, 유의한 지지증거를 찾지 못한 결과가 사회-인지적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증재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한 상호작용효과의 유의도 검증 방식은 일종오류의 가능성(예컨데, 5/100 이하)보다는 이종오류의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들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또 다른 변수들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대부분 JSIM 가설을 지지하고, 이중사실 가설이나 사회-인지적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는 Buss 진영(예, Buunk et al., 1996; Buss et al., 1992, 1996, 1999)이나 Harris 진영(예, Harris, 2002, 2003a, 2003b; Harris & Christenfeld, 1966)에서 얻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어느 진영이나 가상적 시나리오 상황의 강제 선택방식 응답에서는 일관되게 진화심리학 진영에서 예측하는 질투 반응의 성차를 얻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던 Buss 등(1999)의 연구와 황재원 등(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에 비해, 성차의 정도와 성적 부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체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Buss 등(1999)의 연구에서는 한국 남자 대학생들이 성적 부정을 선택한 응답 백분율(두 가

지 가상 상황에 대한 응답률을 평균함)이 55% 정도이고 여자 대학생의 그에 해당하는 응답 백분율은 20% 정도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한국 남성들이 성적 부정을 더 괴롭다고 응답한 백분율은 38% 정도였고 여성의 이에 해당하는 백분율은 15% 정도였다. 본 연구의 대학생 표본만을 뽑아서 비교한 결과도 남학생의 응답 백분율은 41% 정도이고 여학생의 백분율은 15% 정도로 전체 집단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비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성적 부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남성의 반응만을 비교하면 남성들도 배우자의 성적 부정보다는 정서적 부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남녀별로 성적 부정에 대해 보이는 반응 민감성의 차이도 26%에서 18% 정도로 종전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40%대의 차이와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나 질투의 성차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이론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먼저, 대학생들을 넘어서 일반 성인들까지 포함시킨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반복 검증되어 온 질투의 성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질투의 성차에 대해 이중사실이나 일석이조 가설의 대안적 설명을 상당한 정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만으로 JSIM 가설이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DeSteno 등(2002)이나 Harris(2003a, 2003b)가 지적하듯이, 두 가지 부정 상황 중에서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상황별로 당혹스러움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거나 가상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부정 경험에 대한 반응을 자료로 한 연구들에서는 JSIM에서 주장하는 질투의 성차가 사라지거나 그 방향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상적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강제선택방식의 응답 형식이 남녀의 서로 다른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질투 반응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타당도 문제는 추후의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미국 대학생이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제선택방식 선행연구들에 비해 성차의 정도가 작은 현상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들의 결과를 기다려 해석하는 보수적인 자세가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질투에 대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JSIM 관점이 갖는 편협함을 공격한다. 질투 반응에 진화적 영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성적 부정에 그리고 여성은 정서적 부정에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선천적 모듈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Harris, 2003a, p. 320). 그보다는 자연선택이 남녀가 이분법적으로만 구분되지 않고 또한 성적인 짝 사이의 질투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다 융통성 있고 일반적인 질투의 모듈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Eagly & Wood, 1999; Miller & Fishkin, 1997). 남성이 배우자의 성적 부정을 막는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부정이 일어나는 상황 그 자체만을 막으려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의 성적 부정은 갑작스레 발생하기보다는 눈 맞춤이나 미소 등과 같은 상당한 정도의 사전 의식(ritual) 후에 일어난다. 이런 사전 신호들을 경계하는 것이 남녀 모두에서 부정을 방지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전 신호들은 성적인 동시에 정서적이기도 하며 성적인가 혹은 아닌가가 매우 불분명하기도 하다. 따라서 JSIM 가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 부정과 정서적 질투는 서로 분

명하게 구분되는 모듈로 처리되기 어렵다.

Harris(2003b)는 인간의 진화역사가 보다 일반적인 질투 모듈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흔히 인간 인지가 복잡하게 발달한 원인을 인간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한 데서 찾는다. 사회적 환경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서 인간은 신체 크기에 비해 큰 뇌 용량과 신경질을 발달시켰으며, 이런 변화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반응하는 반사적 반응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습 능력의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JSIM 가설의 심각한 제한점 중의 하나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질투나 정서적 질투에만 설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서도 같이 성적인 짝이 아닌 경우에도 질투는 발생하며, 오히려 성적인 질투보다 발달적으로도 선행한다. Miller와 Fishkin(1997)은 인간의 진화적 적응환경이, Buss 등의 진화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부성의 확신이 남성의 자손 번식에 핵심적 요인이 되는 것과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애착-다산성(attachment-fertility) 가설을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 유아는, 다른 영장류의 새끼들과도 다르게, 오랜 기간의 의존성을 보이고 이 기간 동안의 돌봄과 학습이 생존과 번식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짝과 자식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남녀 모두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설명은 본 연구에서 얻은 남녀 모두가 연인이나 배우자의 정서적 부정에 대해 더 큰 괴로움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얻은, 여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의 성적 부정에 대한 높은 반응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결과는 가상적 시나리오 상황에서 강제적 선택방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황재원 등(2004)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연속형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남성은 성적 부정에 여성은 정서적 부정에 더 질투를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어서(비록 그 차이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DeSteno 등(2002)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르다.

연구자는 질투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의 현 상태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과학적 이론의 모든 표준을 만족시켰다고 주장하는 'JSIM'이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주장되고 있는 '사회-인지' 및 '애착-다산성' 등의 이론을 본 글에서 모두 '가설'이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하다. 질투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을 인정한다면, 강력한 이론을 구성하는 작업이 연구와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임을 감안하더라도 선부른 결론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필자는 JSIM 가설이 널리 알려지고 이제 이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재반론과 모형의 수정작업들이 진행중이거나 검증모색을 하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의 질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 가설을 아래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는 신라 향가, '처용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밝은 달에 밤늦도록 놀며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었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겠는가?”

처용가의 내용은 동해 용왕의 일곱째 아들로 인간인 동시에 신인 처용이 아내를 빼앗은 역신에게 관용의 정신을 베푸는 이야기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처용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처용은 다음 순간 아내와 자신 및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인격이 배어나오는 방식으로 상황을 재정의 하고 있으며 처용의 후속 행동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처용의 이야기가 관용의 정신을 상징한다면 이는 그만큼 배우자의 성적 부정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질투가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처용가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질투 유발 상황에서 보이는 인간의 반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 가거나 변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의 용어를 적용해 보면, 처용가의 내용은 아내의 부정을 목격하는 순간의 나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일차 평가'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이차 평가'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또한 Shiffrin과 Schneider(1977)가 제안하는 '자동적 사고(automatic thinking)'와 '통제된 사고(controlled thinking)'의 구분을 적용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아내의 부정을 목격하는 순간,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자극을 처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사고처리 과정이 일어나며(“~가랑이가 넷이로구나.” 까지), 그 다음 과정은 의도가 개입되며 많은 정신적 노력이 수반되는 처리가 일어난다 (“본디 내 것이지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겠는

가?").

Epstein(1990)도 인간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체계를 통해 실재를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이성적(rational) 체계는 주로 의식적으로 작동되고, 논리적 법칙을 사용하는데, 속도가 느리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상징적 처리장치이다. 이에 반해, 경험적(experiential) 체계는 직관적이다. 이것은 실재를 평가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급속하고 저급한” 방법이다. 이것은 지름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의지하며,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기능한다. 두 체계는 함께 작용하지만 상황의 요구에 따라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나와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계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반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거나 정서적으로 깊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적 체계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Metcalf와 Mischel(1999)은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행동과 관련해 정서적이고 충동적이며 반사적인 “뜨거운(hot)” 체계가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체계는 연결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된다. 반면 “차가운(cool)” 체계는 전략적이고 유연하며 느리고 비정서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뜨거운 체계를 자기조절하고 통제해야 해야 하는 상황은 종종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 발생한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려는 중독자가 유혹을 받는 상황이나 배우자나 연인의 부정을 목격한 상황들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뜨거운 체계는 화재에 대한 반응처럼 모든 신체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응급반응 태세를 일시에 갖추게 해주지만, 이런 활성화로 인해 사려 깊고 계

획적인 활동과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 차가운 체계의 작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한편 ‘충동성 대 억제(impulsivity versus constraint)’를 개인차의 기본 차원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자발적 행동과 억제적 행동을 기초하고 있는 신경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Liberman, Gaunt, Gilbert, & Trope, in press; Carver & Scheier, 2004에서 재인용). 이들은 세상을 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고 본다.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전반적 형태-재인(global pattern-recognition)’ 과정이 발생하고, 뒤 이어서는 계열적이고, 보다 느리며, 규칙에 기반한 처리 과정이 진행되며 이는 전두피질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유형들은 두 개의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중 하나는 사고처럼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생각 없이 자명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상의 논의와 일관되게, 정서와 사고의 학습 및 기억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알려져 있다(서미숙, 2004). 정서와 사고는 진화적으로 발생한 시기도 다르고 각기 다른 기능으로 인간의 생존에 기여한다(Ledoux, 1996). 정서의 일차적 역할은 위험을 빨리 평가해서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있으며 뇌의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일차적으로 관련된다. 편도체의 중심핵은 모든 형태의 감각정보를 받아들이며 혐오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반응의 표현에도 중요하게 관여한다(Campeau, Hayward, Hope, Rosen, Nestler, & Davis, 1991; 서미숙, 2004에서 재인용). 감정(feeling)은 뇌 피질의 처리를 거쳐 의식되는 정서(emotion)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전두피질은 정서의 핵심 중추인 뇌 변연계와 긴

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eman, 1995). 사고 기능의 중추로 알려진 뇌의 신경피질에서 등록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전두피질을 통해 반응을 조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서지능(EQ)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Goleman(1995)은 전두피질을 정서의 관리자라고 부른다. 개인이 내부와 외부에서 유래하는 위협 자극에 노출될 때, 일차적으로는 뇌의 신경피질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시상과 편도체 회로를 중심으로 하는 빠르고 자동적인 정서반응이 선행하고, 뒤이어 신경피질에서 그 의미가 평가된 의식적이고 섬세한 변별이 개입된 사고반응이 뒤 따른다(Ledoux, 1996).

최근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보처리가 상정-처리적 접근과 연결주의적 접근으로 나뉘어 진다고 보기 시작했다(Carver & Scheier, 2004).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 정보처리에서의 이중 체계에 관한 아이디어들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질투 반응의 진행과정을 위의 주장들에서처럼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즉, ‘일차 평가와 이차 평가’ ‘자동적 사고와 통제된 사고’ ‘뜨거운 체계와 차가운 체계’, ‘경험적 자기체계와 합리적 자기체계’, ‘전반적 형태 재인과 규칙 기반적 억제’. 그리고 ‘정서반응과 사고 반응’.

‘일차 평가’, ‘자동적 사고’, ‘전반적 형태 재인’, ‘뜨거운 체계’, ‘경험적 자기체계’, 혹은 ‘정서반응’과 관련되는 질투 반응은 Buss 진영의 JSIM 가설과 더 밀접히 관련되지 않을까? 이에 반해 ‘이차 평가’, ‘통제된 사고’, ‘차가운 체계’, ‘합리적 자기체계’, ‘규칙 기반적 처리 (혹은 억제)’, 혹은 ‘사고반응’ 등은 질투에 관한 사회-인지 가설과 관련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을 탐색해 볼만하다.

아내를 남편의 소유라고 보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대등한 배우자 관계로 달라지면 처용의 질투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성이 처용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성적인 부정이나 정서적인 부정 상황에 개입된 상황에 당면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처용이 어릴 때 형제자매 사이의 질투를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질투 반응이 관계나 개인의 건강에 해롭거나 좋을까? 이런 다양한 물음들에 대해 일관되고 절약적인 설명과 예측을 제안하는 이론이나 모형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시급하게 답해야 할 연구문제가 적지 않다.

## 참고문헌

- 서미숙 (2004). 정서와 사고의 신경생리학적 기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53-68.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 황재원, 허태균, 한성열 (2004). 질투심의 성차: 진화적 기제인가 사회적 구성물인가?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20.
- Buss, D. M. (1995). Evolutionary psychology: A new paradigm for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Inquiry*, 6, 1-30.
- Buss, D. M. (2000). *The dangerous passion Why jealousy is as necessary as love and sex*. New York: Free Press.
- Buss, D. M., Larsen, R., & Westen, D. (1996). Sex differences in jealousy: Not gone, not

- forgotten, and not explained by alternative hypotheses. *Psychological Science*, 7, 373-375.
- Buss, D. M., Larsen, R., & Westen, D.,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s*, 3, 251-255.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Choe, J. C., Lim, H. K., Hasegawa, M., Hasegawa, T., & Bennett, K. (1999). Jealousy and the nature of infidelity: tests of competing hypotheses about sex dif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Personal Relationships*, 6, 125-150.
- Buunk, B. P., Angeleitner, A., Oubaid, V., Buss, D. M. (1996). Sex differences in evolutionary and cultural perspective: Tests from Netherlan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Sciences*, 7, 359-363.
- Caporael, L. R. (2000). Evolutionary psychology: Toward a unifying theory and hybrid sc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607-628.
- Carver C. S., & Scheier, M. T. (2004). Perspectives on personality (5th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 Daly, M., Wilson, M., & Weghorst, S. J. (1982). Male sexual jealousy. *Ethology and Sociobiology*, 33, 11-27.
- DeSteno, D. A., & Salovey, P. (1996). Evolutionary origins of sex differences in jealousy? Questioning the "fitness" of the model. *Psychological Sciences*, 7, 367-372.
- DeSteno, D., Bartlett, M. Y., Braverman, J., & Salovey, P. (200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 Evolutionary mechanism or artifact of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03-1116.
- Eagly, A. H., & Wood, W. (1999). The origins of sex differences in human behavior: Evolved dispositions versus social roles. *American Psychologist*, 54, 408-423.
- Epstein, S. (1990). 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 In L.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65-192). New York: Guilford.
- Geary, D. C., Rumsey, M., Bow-Thomas, C. C., & Hoard, M. K. (1995). Sexual jealousy as a facultative trait: Evidence from the pattern of sex differences in China and United States.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355-383.
- Goleman, D. (1996).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황태호 역. 서울: 비전 코리아. (원전은 1995년도에 출판).
- Harris, C. (2000).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imagined infidelity: The specific innate modular view of jealousy reconside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082-1091.
- Harris, C. (2002). Sexual and romantic jealousy i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adults. *Psychological Science*, 13(1), 7-12.
- Harris, C. (2003a). Factors associated with jealousy over real and imagined infidelity: An examination of the social-cognitiv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perspect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319-329.
- Harris, C. (2003b).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sexual jealousy, including self-report data,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interpersonal violence, and morbid jealous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2), 102-128.
- Harris, C. (2004). The evolution of jealousy. *American*

- Scientist, 94, 62-71.
- Harris, C., & Christenfeld, N. (1996). Jealousy and ra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across gender and culture. *Psychological Science, 7*, 378-379.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upka, R. B., & Bank, A. (1996).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and social construction? *Cross-cultural Research, 30*, 24-59.
- Hupka, R. B., & Ryan, J. M. (1990). The cultural contribution to jealousy: Cross cultural aggression an sexual jealousy situations. *Behavioral Science Research, 24*, 51-71.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1999). *Stress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doux, J. E. (1996). *Emotional brain*. New York: Touchstone.
- Metcalf, J., & Mischel, W. (1999). A hot/cool system analysis of delay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 3-19.
- Miller, L. C., & Fishkin, S. A. (1997). On the dynamics of human bonding and reproductive success. In J. A. Simpson & D. T. Kenrick (Eds.),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pp. 197-236).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ines, A. M. (1992). *Romantic jealousy: Understanding and conquering the shadow of love*. New York: St. Martin Press.
- Pinker, S. (1997). *How the minds work?* New York: Norton.
- Sagarin, B. J., Becker, D. V., Guadagno, R. E., Nicastle, L. D., & Millevoi, A. (2003).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jealousy: The moderating influence of infidelity experience and sexual orientation of the infidelit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4*, 17-23.
- Salovey, P., & Rodin, J. (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80-792.
- Salovey, P., & Rothman, A. (1991). Envy and jealousy: Self and society. In P. A. Salovey (Ed.), *The psychology and jealousy* (pp. 271-286). New York: Guilford.
- Shiffrin, R. M., & Schneider, W. (1977). Controlled and automatic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Perceptual learning, automatic attending, and gener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4*, 127-190.
- Symons, D. (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iderman, M. W., & Kendall, E. (1999). Evolution, sex, and jealousy: Investigation with a sample from Swede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0*, 121-128.

원고 접수: 2004년 8월 2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10월 16일

게재 결정: 2004년 10월 23일

# Men's Jealousy and Women's Jealousy: Sex differences in Sexual and Romantic Jealousy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specific innate modular theorists have claimed that men are innately more upset by a mate's sexual infidelity and women are more upset by a mate's emotional infidelity because the sexes faced different adaptive problems(for men, cuckoldry; for women, losing a mate's resourc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plicability of the results of JSIM(Buss et al., 1992) for Korean adults(including college students) sample.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ule out the explanations of the double-shot hypotheses(DeSteno & Salovey, 1996). Additionally, moderating effects of age, educational level, religion, occupation, marriage status, and attachment style based on the social-cognitive hypotheses(Harris, 2003b) were examined. 300 adults men and women completed forced-choice hypothetical measures. Results of the study replicate the findings of JSIM. Men more frequently chose the sexual infidelity scenario as most upsetting than women, whereas women more frequently chose the emotional infidelity scenario as most upsetting than men. Contrary to the double-shot explanation, choice of scenario was unrelated to two for one possibility. Interaction effects of sex with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factors also were not found. Resul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with JSIM and social-cognitive theory and previous studies. Alternative view of jealousy was suggested for the future research.

*Keywords:* jealousy, sex differences, sexual infidelity, emotional infidelity